

진안푸드, 행복 먹거리 개발 '한창'

12명과 홍삼·사과·돼지고기 등 농특산물 활용한 레시피 만들어

진안군은 맛집 운영자나 요리 솜씨 보유자 등 음식개발에 관심과 역량이 있는 희망자 12명과 함께 홍삼, 사과, 돼지고기 등 진안고유의 농특산물을 활용한 요리 개발에 발 벗고 나섰다.

군은 진안의 청정 농특산물을 활용해 진안푸드의 대중화가 가능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진안푸드 향토먹거리 개발 스타디'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스타디는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가공교육장에서 진행된다.

수강생들은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간편한 요리법, 누구나 맛있게 즐길 수 있는 음식'이어야 한다는 한결같은 목소리를 내며, 그동안 전문가로부터 교육을 받던 수동적 자

세에서 진안푸드 먹거리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스타디는 돼지고기, 표고, 진안감치 등을 넣고 만든 '홍삼컵밥', 찹쌀과 멥쌀을 섞어 양념소를 넣어 만든 '홍삼부꾸미' 등 간편하게 들고 다니면서 관광 할 수 있는 먹거리에 중점을 두고 진행되고 있다.

수강생들은 홍삼담발, 홍삼사과약밥, 홍삼화채 등도 개발할 것이라며 다양한 아이디어를 쏟아 내며 먹거리 개발에 한창이다.

또한 개발음식 레시피 표준화 연구와 함께 오는 7월에는 기본 베이스화된 개발음식으로 요리전문가를 초빙해 컨설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렇게 개발된 음식들은 각종 행사나 진안홍삼축제 판매 부스에서 선

배 소비자 반응을 접목한 후 관심 있는 음식업소, 휴게소 운영자 등에게 개발 음식 레시피를 사용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주천면 조영임(63) 맛집 운영자는 "내 솜씨를 내놓기도 하고 다른 사람 솜씨를 배우기도 하면서 또 다른 맛, 또 다른 음식이 나오는 걸 보니 기쁘고 보람있다."며 "스타디에 참여하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필환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진안고유의 청정 농특산물을 활용한 진안군의 대표 음식 개발과 상품화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농산물 소비 촉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과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가 함께 수확한 표고버섯을 관내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했다.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수확물 이웃돕기

무주군, 표고버섯 40kg 관내 경로당·독거노인 가정에 전달

무주군은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과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가 함께 수확한 표고버섯을 관내 경로당과 독거노인 가정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관내 취약계층에 전달된 표고버섯은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회원들이 멘토가 되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생과 함께 거둔 첫 수확물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더하고 있다.

무주군 귀농·귀촌협의회 김용 회장은 "우리 군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는 교육생들이 체재형 가족실습농장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안정적인 정착에 살면서 무주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교육생 김모(54, 서울 마포)씨는 "처음 농사지어서 거둔 수확물을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게 돼 굉장히 뿌듯하다"라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에서의

경험과 멘토 분들의 도움이 귀농해서 사는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말했다.

2017년 서울시와의 업무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운영되고 있는 무주군 체재형 가족실습농장은 무주로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안정적인 정착을 돕기 위해 운영하는 것으로, 참여 세대에 각각 주택과 텃밭을 유상 제공하며 원에 시설하우스 1동(660㎡)과 버섯 시설하우스 1동(170㎡), 공동경작지 1곳(1,235㎡)에서 귀농·귀촌 기초과정과 농기계, 농산물 재배 및 판매 교육(교육비 월 20~25만 원)을 진행한다.

올해는 귀농·귀촌협의회 멘토링 사업과 연계해 감자, 옥수수, 표고버섯, 토마토, 고추, 고구마 등 재배 작물에 대한 영농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지역 매아리

진안군의회, 제253회 제1차 정례회 폐회

진안군의회(의장 신갑수)는 19일 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12일부터 1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253회 제1차 정례회를 폐회했다.

이번 정례회는 상임위원회를 통해 11건의 조례안 중 '진안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결 처리하고 나머지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18 회계연도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했다.

이와 함께 회기 첫날 실시된 제1차 본회의에서 정옥주 의원의 '말장비닐 지원 필요'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이 있었고 진안군 의료원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중간보고 및 활동기간 연장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변경의 건을 의결했다.

신갑수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군정 현안들이 군민의 뜻을 담아 차질 없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군민여러분도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면서 지역발전엔 힘을 한곳으로 모아주시길 것을 부탁드립니다."고 당부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전북투어패스현장 체험

관광 안내사·해설사 대상

무주군은 관광 안내사 및 해설사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전북투어패스 현장체험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1~2차로 진행될 예정으로 지난 17일에는 무주군 관광안내사 및 해설사 13명이 관내 특별활안가맹점에서 종식체험을 한 후, 무주군관광영화관 영화체험과 새롭게 단장 후 문을 연 머우인동굴을 관람했다.

이날 참가 안내사와 해설사들은 코스를 돌며 각자의 방식으로 해설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 의미를 더했다.

김정희 안내사는 "전북투어패스에 대한 안내와 홍보만 해봤지 해당 코스를 직접 찾아가서 현장체험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관광지를 찾는 손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고 코스별 특·장점들을 되짚으며 업무 스킬을 키우는 계기도 됐다"라고 전했다.

무주군 관광안내사 및 해설사 전북투어패스 현장체험은 하반기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무주군은 전북투어패스 활용 확대는 물론, 무주홍보에 있어서도 내실을 기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군청 최현희 관광마케팅 팀장은 "안내사나 해설사는 물론, 일반 직원도 무주관광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과 체험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일자리 창출 문해교육강사양성 교육

무주군 로컬 JOB센터,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접수

무주군 로컬 JOB센터에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전문 프로그램 운영한다.

주요 교육 과정은 문해교육 강사 양성 과정이며 모집인원은 20명 내외로서 교육을 희망하는 군민은 누구나 신청서를 작성해 20일부터 7월 3일까지 무주군로컬JOB센터(무주군청 민원실 맞은편 전북은행건물 4층)로 직접 방문·제출하면 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정 30시간, 현장실습 10시간으로 진행된다.

이론과정은 10회기로 2019년 7월 24일~8월 23일 매주 수요일, 금요일 9:30부터 12:30까지 진행된다.

이론교육을 이수하고 문해교육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도내의 우수 문해교육 관련기관으로 현장실습을 3주간 진행한다.

또한 교육과정동안 현장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멘토 위원들에게 훈련생 개인별 문해교육 지도 및 강의법에 대한 멘토링이 진행된다. 문해교육 이론교육과정 및

현장실습을 이수자는 문해교육사(한글지도사) 자격증이 발급되며 무주군 전역에 걸쳐 활동을 하게 된다.

무주군 로컬 JOB센터 김진태 센터장은 이 교육을 통하여 전문 문해 교육 강사를 양성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문자해독 능력을 포함한 사회적·문화적으로 요청되는 기초 생활능력을 갖출 수 있으며 무주군의 문맹률을 낮추고 동시에 문해교육 강사 양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비문해자들의 기초생활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용담호 환경리더 45명 배출

제11회 용담호 환경대학 수료식 개최

진안군 용담호 환경대학 수료식이 19일 군민자치센터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수료식에는 환경대학 졸업생과 용담호 수질개선 진안군 주민협의회 임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진안군민의 높은 관심과 호응 속에 2009년 처음 시작된 용담호 환경대

학은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용담호 환경대학은 매주 수요일 6주간의 일정으로 환경 분야 교수와 전문 강사진으로 꾸려 운영됐다. △용담호 수질관리의 필요성과 실천사항 △유역하천관리 △수질오염대책 △친환경 비누만들기 △금강순례행

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수강생들로부터 호평을 얻었다.

올해 45명의 환경대학생을 배출하면서 환경대학은 현재까지 총 504명의 환경리더를 양성해냈다.

배철기 산업환경국장은 "환경리더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용담호 수질보전을 위한 수질개선 실천운동을 적극 전개해주고, 용담호 맑은 물 지키기에 군민 모두가 동참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장수군, 7월 21일까지

장수군은 오는 7월 21일까지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 사업 대상자 20여명을 모집한다고 19일 밝혔다.

모집 인원은 20명이며 지원 대상은 전북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농업과 중소기업, 문화예술분야 1년 이상 종사한 만18세~39세 이하 청년으로, 한 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신청 가능하다.


이번 사업은 체크카드 발급을 통한 포인트 차감방식으로 지원되며 선정된 청년은 최대 360만원(월 30만원 X 12개월)을 온·오프라인에서 건강관리, 자기개발, 문화·레저 등 개인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

다. 단 오프라인의 경우는 도내에서만 사용가능하다.

신청 접수는 전북 청년지역정착 지원사업 포털(ttd.jp.go.kr)에 회원가입 후 제출서류를 등록하면 된다. 대상자 선정은 1차, 2차 심사를 통해 최종 선정한다.

군 관계자는 "청년일자리 소외, 비정규직 확대, 소비계약 등 청년활동 위축에 따른 청년문제를 해소하고 정착기반이 약한 저소득 기취업 청년의 생활보조 지원으로 경제적 자립지원과 지역정착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활력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청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